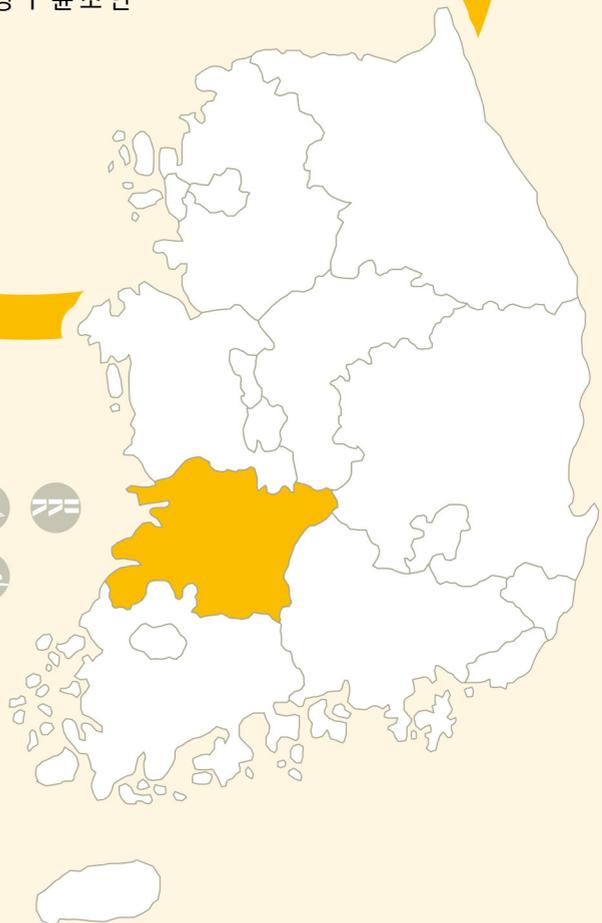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김민영 | 윤소연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진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소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연구배경 및 목적	
	01. 연구배경	4
	02. 연구목적	4
II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01.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5
	02.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분석	6
III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현황	
	01. 중앙부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15
	02.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21
IV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01. 관계인구 개념 및 의미	30
	02.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33
V	관계인구 활용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01. 결과 종합	43
	02. 정책 제언	46
	참고문헌	50
	부록	5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와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 간 정보 및 네트워크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지방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마케팅, 사업 확장 등에 영향을 미쳐 지방 창업기업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 그간 전라북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내부 행위자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창업기업이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에 접근하여 사업 정보를 얻고 주요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과 네트워킹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시 전북으로 돌아와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①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②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③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등을 분석함
 -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통해 전북 특성을 분석함
 -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검토함
 -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를 통해 전북도에서 창업정책 추진 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함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1.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 기업가적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s)는 생산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자 및 요인을 의미함(Stam 2015)
 - 기업가적 성과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능력이 아니라 특정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함
 -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 국내에서는 기업가적 생태계라는 학술적 개념을 스타트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s)로 구체화하여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음
 - 기업가정신은 창업이나 창업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novelty)을 창출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구양미 2022)
 - 개인 기업가가 이윤 창출 기회를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형태가 새로운 기업의 형성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형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음(구양미 2022)
- 즉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타트업의 형성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자 및 요인으로 정의됨
- 본 연구에서는 김영환·김지은(2020)의 접근을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로 자금, 교육, 문화, 지원조직, 지식 인프라, 시장/규제, 지원정책 등을 고려함
 - 김영환·김지은(2020)은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 [그림 1]은 개인(창업자)이 자금, 교육, 문화, 지원조직, 지식 인프라, 시장/규제, 지원정책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하여 기업 성과를 창출해 내는 과정을 나타냄

◀ 그림 1 ▶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자료 : 김영환·김지은(2020)의 [그림 1-3] 재구성

2.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분석

□ 분석개요

- 김영환·김지은(2020)이 제시한 스타트업 생태계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함
 - [표 1]을 살펴보면, 창업가가 창업하여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이어지는 시간 축을 고려하여, 기업가/창업 → 지원조직, 기술/지식 인프라, 정책/규제, 문화/인식, 교육 → 기업 순으로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음
 - 국가 단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프레임워크이므로, 시·도 단위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금', '기업가적 다양성', '글로벌화' 부문은 분석에서 제외함
-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함
 - (공간 단위) 시·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이나 전북이 포함된 권역 단위에서 분석함
 - (시간 범위)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함
-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에서 활용한 지표의 정의 및 출처는 [부록]에 정리함

◀ 표 1 ▶ 시·도 단위 스타트업 생태계 성과 진단 프레임워크

부문	구성요소	주요 문제인식
기업가/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창업활동 창업의 질 창업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가? 창업활동이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가? 창업의 양적 수준 대비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대중의 창업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얼마나 적극적인가?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조직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업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기여하는가?
기술/지식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연구개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어떠한 수준인가?
정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자금 규모는 충분한 수준인가?
문화/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패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향을 가진 개인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가? 창업 실패에 대한 대중 인식과 사회적 안전망 부족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은 대중화되어 있는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생존율 신규고용 고성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는가?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가?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주 : '기업가/창업'은 기업가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활동으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 의미
 '기업'은 창업 이후의 기업성장과 성과 의미
 '엑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지원 전문조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독립적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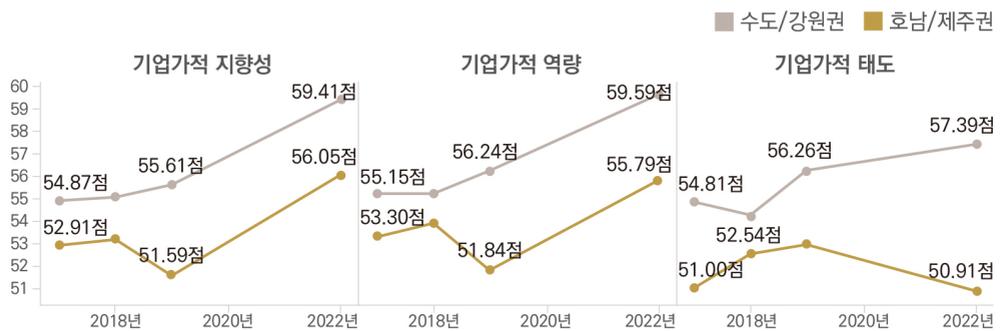
자료 : 김영환·김지은(2020) 재구성

□ 기업가/창업

- (기업가정신) 지난 3년간 기업가적 성향·역량은 향상되었으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의지는 하락했으며, 수도/강원권과 기업가정신 전반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지난 3년간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업화 역량이 향상되었으나, 창업 활동에 대한 태도와 의지는 하락함
 - ▷ 2019~2022년 호남/제주권 기업가적 지향성(51.59점 → 56.05점)과 역량(51.84점 → 55.79점) 모두 상승

- ▷ 같은 기간 호남/제주권 기업가적 태도는 52.94점에서 50.91점으로 하락
- 수도/강원권과 비교하면 기업가정신 전반에서 수준이 더 낮고 격차가 확대됨
- ▷ 수도/강원권 대비 기업가적 지향성, 역량, 태도 전반에서 호남/제주권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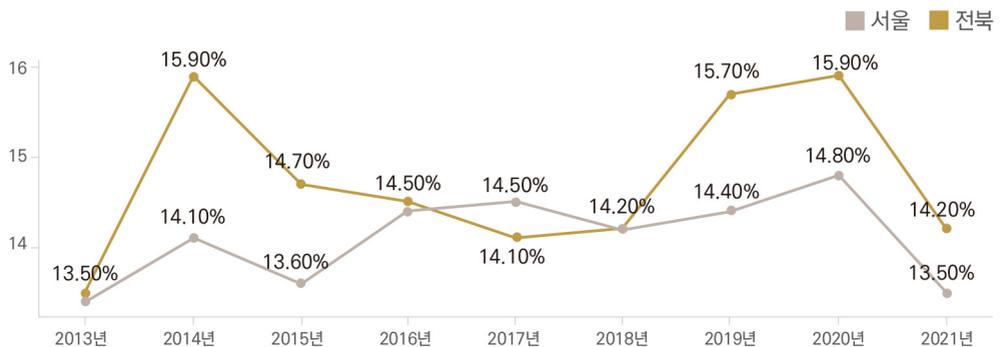
◀ 그림 2 ▶ 기업가정신 현황(2017~2022년)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조사(2017~2019, 2022)」

- (창업활동) 지난 9년간 전북에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창업률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어 창업활동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3~2021년 전북 창업률(13.50% → 14.20%)은 유의한 변동 없이 유지
- 같은 기간, 전북 창업률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1%p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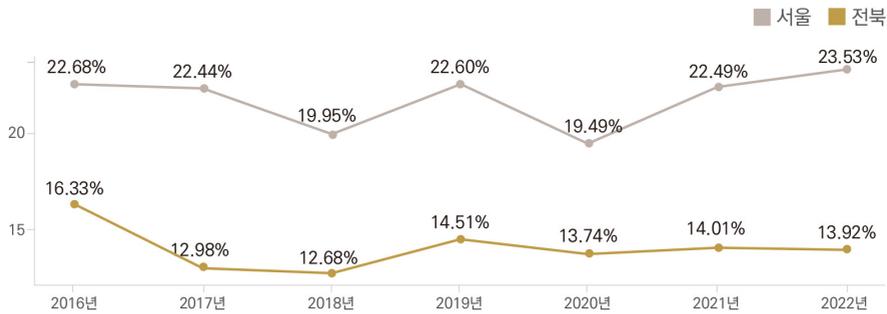
◀ 그림 3 ▶ 창업률 현황(2013~2021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2013~2021)」

- (창업의 질) 지난 7년간 전북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에 비해 낮아 창업의 질적 수준이 떨어짐
 - 2016년~2022년 전북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비중(16.33% → 13.92%)은 감소
 - 반면, 서울은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비중이 전북 대비 높았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비중(22.68% → 23.53%)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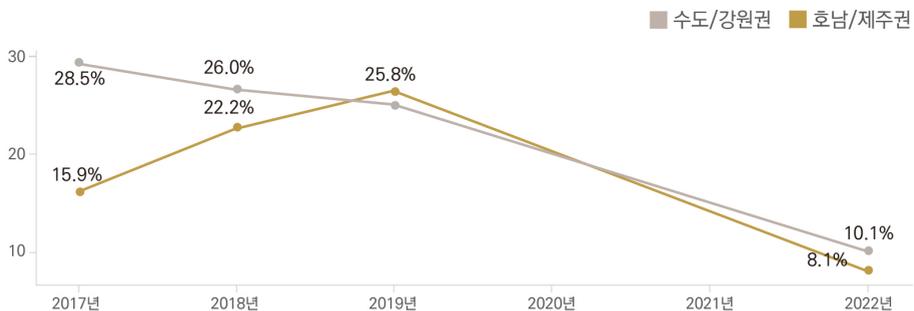
◀ 그림 4 ▶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비중(2016~2022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2016~2022)」

- (창업의향) 호남/제주권에서 3년 이내 창업계획을 지닌 인구 비중이 2017~2019년 동안 증가했으나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 2017~2019년 창업계획을 지닌 인구 비중(15.9% → 25.8%)이 증가했지만 2022년에 크게 하락(25.8% → 8.1%)
 - 단, 2019년과 2022년 사이의 창업계획 감소 추세는 호남/제주권 뿐 아니라 수도/강원권(24.5% → 10.1%)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

◀ 그림 5 ▶ 3년 이내 창업계획 비율 현황(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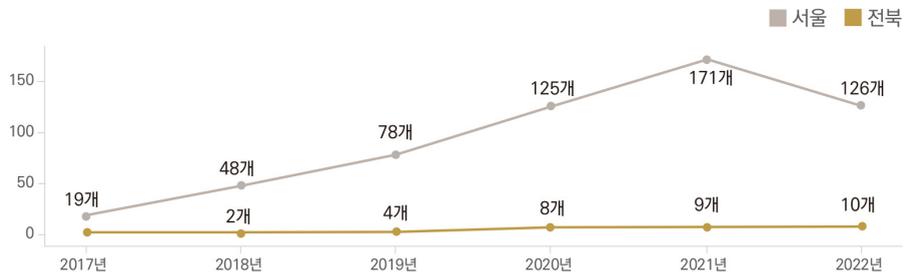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조사(2017~2019, 2022)」

□ 지원조직

- (엑셀러레이터) 지난 6년간 전북 중소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수는 서울과 비교하여 여전히 저조함
 - 2017~2022년 전북의 중소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수(2개 → 10개)는 증가
 -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중소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수가 더 많았을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으로(19개 → 126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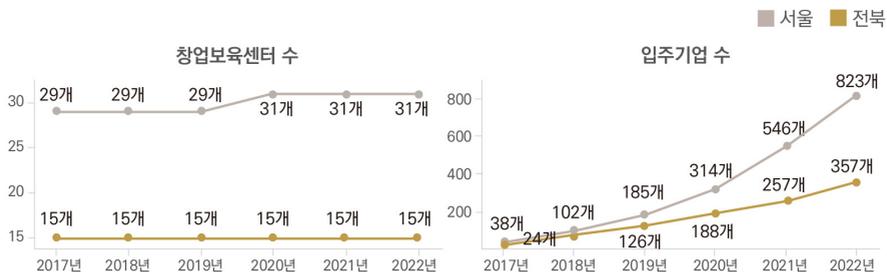
◀ 그림 6 ▶ 엑셀러레이터 현황(2017~2022년)



자료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k-startup.go.kr/>)

- (창업보육센터) 지난 6년간 전북 내 창업보육센터는 증감하지 않았지만 입주기업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2017~2022년 전북 창업보육센터는 15개로 유지되었으나, 입주기업 수(24개 → 357개)는 크게 증가
 - 한편, 같은 기간 서울은 창업보육센터(29개 → 31개) 및 입주기업 수(38개 → 823개) 모두 전북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 그림 7 ▶ 창업보육센터 현황(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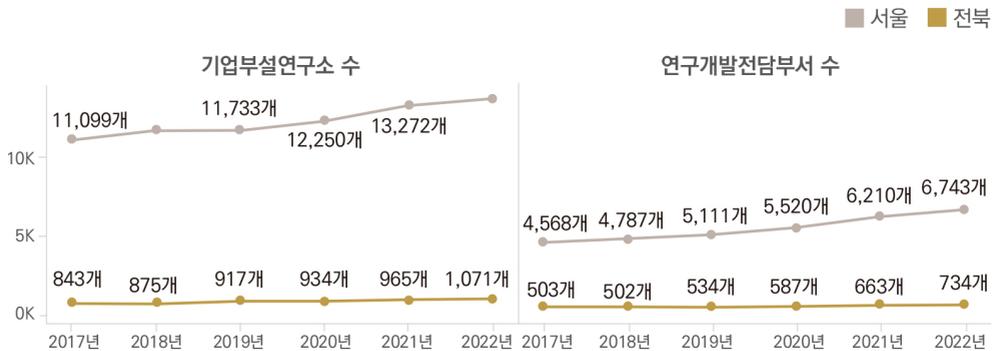


자료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smes.go.kr/binet/main/main.do>)

□ 기술/지식 인프라

- (기업 연구개발 역량) 지난 6년간 전북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조직 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
 - 2017~2022년 전북 기업부설연구소 수(843개 → 1,071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503개 → 734개)는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
 -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 서울 대비 그 수가 부족

◀ 그림 8 ▶ 기업 연구개발 역량 현황(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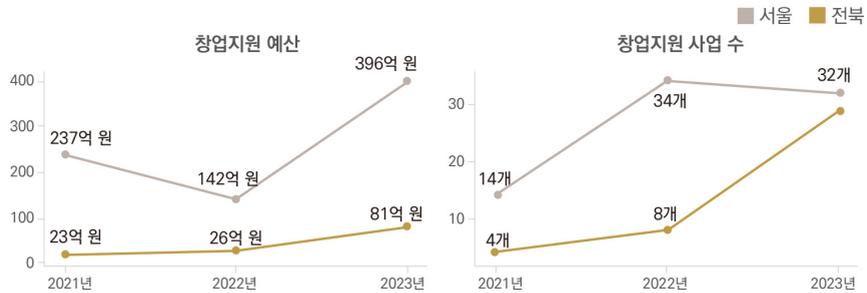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rnd.or.kr/user/main.do>)

□ 정책/규제

- (창업지원사업) 지난 3년 동안 전북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 수는 모두 크게 증가하여, 최근 전북도에서 창업지원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21~2023년 창업지원사업 전체 사업 수(4개 → 29개)가 크게 증가했으며 사업화(2개 → 16개) 및 시설/보육(0개 → 8개)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수가 증가
 - 2021~2023년 창업지원사업 전체 예산(22.6억 원 → 80.7억 원) 역시 대폭 증가했으며 마찬가지로 사업화(12.5억 원 → 60.1억 원) 및 시설/보육(0원 → 10.8억 원)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창업지원사업 사업 수(14개 → 32개)는 전북 대비 증가 폭이 작았지만 예산(237.0억 원 → 396.4억 원)은 크게 높아 전북의 사업당 예산액이 서울 대비 부족

◀ 그림 9 ▶ 창업지원 사업 현황(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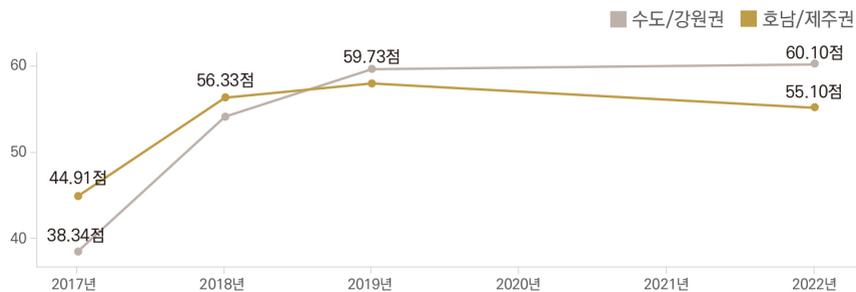


자료 :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웹사이트(<https://www.kised.or.kr/>)

□ 문화/인식

- (실패 두려움) 지난 6년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창업의향을 가진 개인을 가로막고 있음
 - 2017~2022년 호남/제주권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업에 미치는 정도(44.91점 → 55.10점)는 다소 증가
 - 한편, 수도/강원권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업에 미치는 정도(44.91점 → 60.10점)가 전북 대비 크게 증가

◀ 그림 10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현황(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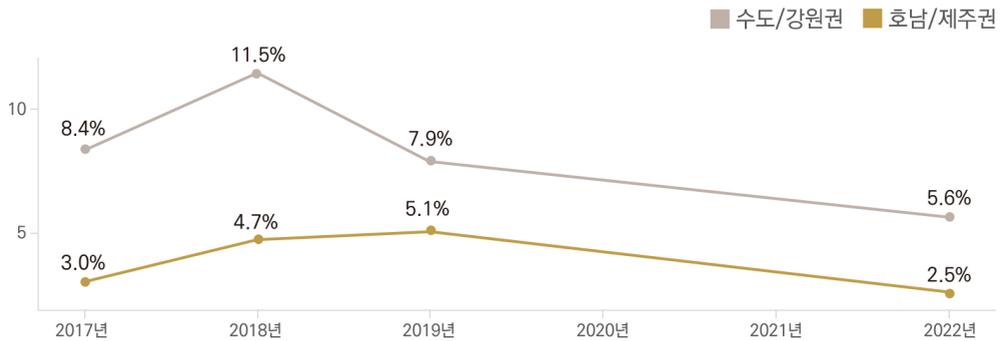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조사(2017~2019, 2022)」

□ 교육

- (창업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험률이 저조하며 창업교육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음
 - 호남/제주권의 창업교육 경험률은 수도/강원권과 비교하여 저조

- 2017~2019년 호남/제주권의 창업교육 경험률(3.0% → 5.1%)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2022년에는(5.1% → 2.5%) 하락
- 단, 2019년과 2022년 사이의 창업교육 경험률 감소 추세는 호남/제주권 뿐 아니라 수도/강원권(7.9% → 5.6%)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

◀ 그림 11 ▶ 창업교육 경험률(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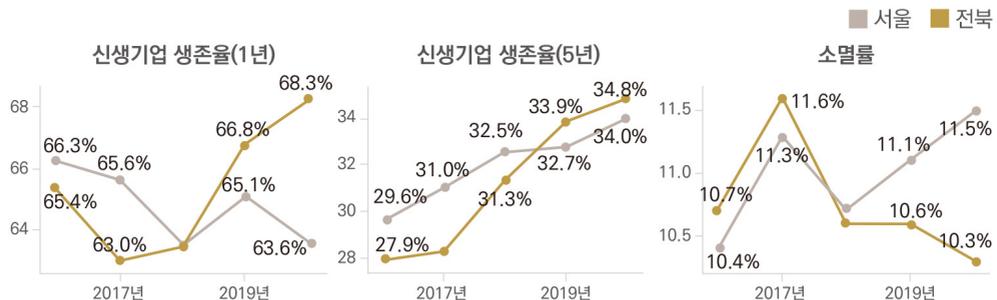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조사(2017~2019, 2022)」

□ 기업

- (기업생존율) 최근 5년간 전북 창업기업 생존율은 개선되고 있음
 - 2016~2020년 전북의 신생기업 1년(65.4% → 68.3%) 및 5년(27.9% → 34.8%) 생존율은 증가했으며 소멸률(10.7% → 10.3%)은 소폭 감소
 - 같은 기간 전북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서울과 비슷한 추세를 기록했으며 소멸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한 서울과 달리 꾸준한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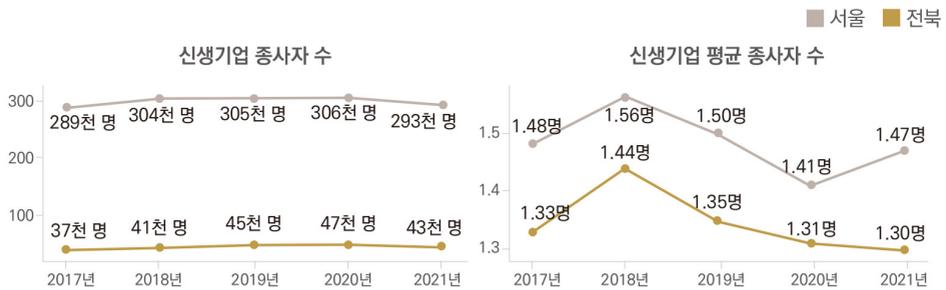
◀ 그림 12 ▶ 신생기업 생존율 및 소멸률 현황(2016~2020년)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6~2020)」

- (신규고용) 전북 신생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업당 종사자 수는 감소하여 신생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서울에 비해 낮음
 - 2017~2021년 전북 신생기업 종사자 수(37천 명 → 43천 명)는 소폭 증가
 - 같은 기간 전북 신생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1.33명 → 1.30명)는 소폭 감소
 - 신생기업 전체 종사자 수 및 신생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모두 서울 대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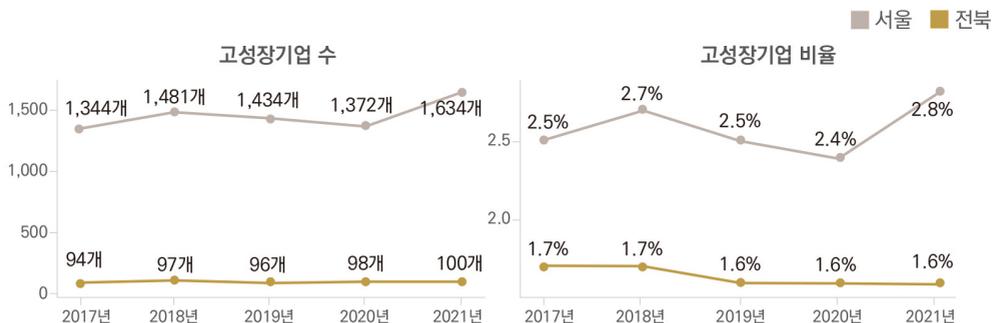
◀ 그림 13 ▶ 신생기업 고용 현황(2017~2021년)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7~2021)」

- (고성장창업기업) 지난 5년간 전북 창업기업 중 고성장기업 비중이 서울에 비해 낮아 창업기업 스케일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7~2021년 전북 고성장기업 수(94개 → 100개)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고성장기업이 전체 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1.6%로 소폭 하락
 -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고성장기업 수(1,344개 → 1,634개)로 증가하고 고성장기업 비중도 2.5%에서 2.8%로 증가

◀ 그림 14 ▶ 고성장창업기업 현황(2017~2021년)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7~2021)」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현황

1. 중앙부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 정부 창업정책 방향성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제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현' 등 창업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32번)로서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지원정책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업 전환 및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
 -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 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 ▷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 강화 목표
 -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 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도모
 -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둘째,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117번)로서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주도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민간기업 주도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
 - ▷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연어형 지역인재」에 정착 지원
 - ▷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머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 ▷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 중앙부처 창업정책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창업 관련 최초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2021~2023)'을 발표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6개 전략을 제시함**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신산업 창업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DNA(Data, Network, AI)·탄소중립 3대 유망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창업사업화 지원 업력 기준 완화,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 자금 확대 등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TIPS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등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창업 중심 거점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 스타트업 육성,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통한 대학 청년창업 환경 개선 등
 - (교류·기술창업 저변 확대) '킴업', '도전! 케이(K)-스타트업' 등 행사를 통한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 각종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미래 창업인재 양성

-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범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정립,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사업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확립 등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 간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책·시장·기술 정보 공유 및 규제 해소, 창업 휴학 법적 근거 마련, 교원 창업 승인절차 간소화,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 등

◀ 그림 15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추어 2021~2023년 동안 중앙부처 전체 창업지원사업 수와 예산 역시 모두 꾸준히 증가함
 - (사업 수) 90개(2021년) → 100개(2022년) → 102개(2023년)로 증가
 - (사업 예산) 1조 4,368억 원(2021년) → 3조 5,578억 원(2022년) → 3조 5,078억 원(2023년)으로 증가
- 2021~2023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절반 정도가 사업화 관련 사업이며 사업 예산액은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순으로 높음

◀ 표 2 ▶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부문별 현황(2021~2023년)

사업유형	사업수(건)			예산액(1억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90	100	102	14,368.6	35,578.3	35,077.7
① 사업화	47	51	47	8,385.8	8,651.0	7,536.3
② 시설/보육	8	8	9	718.0	1,135.5	902.0
③ 기술개발	5	5	3	4,203.2	4,637.5	4,536.1
④ 멘토링	20	22	19	1,006.1	717.7	618.2
⑤ 행사/네트워크	10	11	12	82.6	256.6	168.0
⑥ 융자	-	3	3	-	20,180.0	20,052.5
⑦ 인력	-	-	2	-	-	427.0
⑧ 글로벌	-	-	7	-	-	837.6

주 : ⑥ 융자 사업유형은 2022년, ⑦ 인력, ⑧ 글로벌 사업유형은 2023년도에 추가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2021~2023년)

- 2023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을 생태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기업가/창업, 자금, 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많고 사업 예산은 자금, 기업, 기업가/창업 순으로 높음
 - 기업가/창업, 자금, 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각각 50개로 그 수가 가장 많았음
 - 사업 예산은 자금 28,290.7억 원, 기업 24,144.2억 원, 기업가/창업 4,930.6억 원 순
 - 자금, 교육 지원의 경우 기업가/창업 및 기업 지원과 함께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주로 활용되는 추세
 - ▷ 예를 들어, 문체부 소관의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

◀ 표 3 ▶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생태계 부문별 현황(2023년)

생태계 부문	사업 수(건, 중복 집계)	예산액(1억 원, 중복 집계)
① 기업가/창업	50	4,930.6
② 지원조직	13	1,009.5
③ 자금	50	28,290.7
④ 기술/지식 인프라	10	4,694.7
⑤ 정책/규제	-	-
⑥ 문화/인식	3	74.3
⑦ 교육	50	4,188.4
⑧ 기업	34	24,144.2

주 : 생태계 부문별로 중복 집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3년 중앙정부 생태계 부문별 대표 창업지원사업은 [표 4]와 같음

- (기업가/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공기술청년사업화 지원사업’ 등 창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 등 제공
- (지원조직) ‘메이커 활성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제작·보육 공간 지원
- (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기업가/창업, 교육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연계되어 제공되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스케일업 등을 위한 패키지형 자금 지원 형태 역시 포함
- (기술/지식 인프라) ‘창업성장 기술개발’ 등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과 ‘특허 컨설팅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형태
- (문화/인식) ‘청소년 비즈쿨’,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 및 확산’ 등
- (교육) ‘혁신창업스쿨’ 등 창업을 위한 교육 및 기업가/창업 지원과 결합되어 있는 패키지 지원 형태
- (기업)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등 기존 창업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

◀ 표 4 ▶ 중앙정부 생태계 부문별 주요 창업지원사업(2023년)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억 원)	소관 부처
① 기업가/ 창업	청년창업 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자금 • 창업 교육·코칭 • 창업공간 • 기술지원 • 정책자금, 투자·판로 등 연계지원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845.1	
	공공기술 청년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자금 • BM고도화 • 교육·멘토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19.7	
② 지원 조직	메이커 활성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 메이커 활동 및 제조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정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 전문 메이커 활동 및 제조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 법인	283.3	중소 벤처 기업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전국 17개 시·도의 창경 센터를 지역창업 허브로 활용하여 지역 창업활성화 및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서비스: 창업관련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 컨설팅 • 창업지원: 창업교육, 투자유치, 네트워킹, 마케팅·판로지원, 글로벌 진출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363.7	
③ 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 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19,300	
④ 기술/ 지식 인프라	창업성장 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 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지원 	업력 7년 이하이며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창업기업	4,423.3	중소 벤처 기업부
	특허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의 경쟁력 있는 지재권 확보 및 실용화 연계를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및 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논문분석, 시장동향, 우회 전략, 로드맵, 해외출원 전략 등 컨설팅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8.0	보건 복지부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억원)	소관 부처
⑥ 문화/인식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쿨학교 지정·운영 • 비즈쿨 캠프 체험교육 • 비즈쿨 교육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학교밖 센터	64.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 및 확산	도전, 창조, 혁신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다양한 기업가정신 인프라 구축 및 문화조성, 창업과 취업의 균형성장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교육,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기업가정신 교육자, 취·창업 취약계층 및 일반국민	8.8	
⑦ 교육	혁신 창업스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하고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 하여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창업교육, 실습교육 • 제품 제작, 시장검증 	(예비)창업자	29.5	
⑧ 기업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보증(최대100억 원) • 해외진출, 민간투자 연계 • 창업벤처 지원 연계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분야 중소기업	24.1	과기정통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 전라북도 민선 8기 창업정책 방향성

- 민선 8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창업정책 변화와 스타트업 취업 선호도 증가 및 벤처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대응
 -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타운 1개 조성, TIPS운용사 5개 유치, 위케이션기업 10개 유치, 해외스타트업 50개 유치, 스케일업 집중관리 100개 기업, 투자펀드 1조원 조성을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

- 민선 8기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성은 5대 전략, 20개 과제로 요약됨
 - (창업/벤처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이 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세부과제로는 창조경제펀드 조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 전북창업지원 기관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운영, 창업 통합정보 서비스 플랫폼 운영,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 (네트워크 고도화) 공공-민간, 창업기업-투자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기업 발굴, 지원 및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함
 - ▷ 세부과제로는 민간중심 창업/벤처정책 자문단 운영, 투자 유망기업 발굴 집중 관리, 공공/민간 및 창업/투자 지원기관과의 교류 확대, 전북벤처 투자포럼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등
 - (클러스터 기반화) 거점공간을 구축/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창업생태계 기반의 경제적 집적효과 확대를 도모함
 - ▷ 세부과제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키움공간 구축,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그랜드 챌린지 얼라이언스), IT·게임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위케이션 추진, 창업보육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 (성장 주기별 체계화) 창업 준비 단계에서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 세부과제로는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맞춤형 창업패키지 지원, 창업중심대학 집중관리 스케일업 지원, 해외 지원기관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 (투자펀드 규모화) 창업 투자자금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기금 구조를 마련하여 창업 및 기업 성장 전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함
 - ▷ 세부과제로는 투자 펀드 확대 조성,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투자계정) 포함

◀ 그림 16 ▶ 민선8기 전라북도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방향

민선8기 전라북도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방향

정책방향	지속성장 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목표	스타트업타운 조성	상장사 배출	TIPS운용사 유치	투자펀드 조성	위케이션기업 유치	해외스타트업 유치	스케일업 집중관리
	1개	5개	5개	7천억원	10개	50개	100개
5대 핵심전략	20대 주요과제						
1 거버넌스 활성화	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 ② 전북창업지원기관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운영 ③ 창업 통합정보 서비스 플랫폼 운영(웹+앱) ④ 공동 협력사업 발굴						
2 네트워크 고도화	⑤ 민간중심 창업·벤처정책 자문단 운영 ⑥ 투자 유망기업 발굴 집중 관리 ⑦ 공공·민간 창업·투자 지원기관과의 교류 확대 ⑧ 전북벤처 투자포럼 운영 ⑨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						
3 클러스터 기반화	⑩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⑪ 키움공간 구축 ⑫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그랜드 챌린지 얼라이언스) ⑬ IT·게임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위케이션 추진 ⑭ 창업보육센터 및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						
4 성장주기별 체계화	⑮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맞춤형 창업패키지 지원 ⑯ 창업중심대학 집중관리 스케일업 지원 ⑰ 해외 지원기관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KORETOVIET 등) ⑱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특례보증, 이차보전)						
5 투자펀드 규모화	⑲ 투자펀드 대규모 확대 조성 ⑳ 투자-회수-재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투자계정)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이 가운데 2023년을 기준으로 핵심 현안사업은 ‘창업/벤처 거버넌스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터 기반화’ 3개 전략에 집중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창업/벤처 거버넌스 활성화) 전북창업지원기관협의회의 창업활성화 촉진 행사 개최 협력, ‘창업정보 통합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공동 운영, 대학·공공기관·지역경제 포함 예정 등

- (네트워크 고도화) 민간중심 전북창업 「창창자문단」 운영 개시, 유망 스타트업 100개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100」 선정,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023」 및 「한국벤처캐피탈 협회(KVCA) 포럼 2023」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등
- (클러스터 기반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지자체 내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진행, TIPS 스테이션 개소, 해외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준비 진행 등

□ 전라북도 광역 지자체 창업정책

- 전북도 창업지원사업은 2021~2022년에 감소하다가 2023년에 대폭 확대
 - (사업 수) 4개(2021년) → 2개(2022년) → 8개(2023년)로 증가
 - (사업 예산) 22.5억 원(2021년) → 7.0억 원(2022년) → 29.7억 원(2023년)으로 증가
- 2021~2023년 전북도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업화 지원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사업 수 및 예산이 모두 사업화에 집중
 - 시설/보육, 기술개발, 융자 등 다른 사업유형에 대한 지원 부족

◀ 표 5 ▶ 전북 광역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부문별 현황(2021~2023년)

사업유형	사업 수(건)			예산액(1억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4	2	9	22.5	7.0	33.7
① 사업화	2	2	6	12.5	7.0	19.7
② 시설/보육	0	0	1	0.0	0.0	5.0
③ 기술개발	0	0	0	0.0	0.0	0.0
④ 멘토링	1	0	1	5.0	0.0	5.0
⑤ 행사/네트워크	1	0	0	5.0	0.0	0.0
⑥ 융자	0	0	0	0.0	0.0	0.0
⑦ 인력	-	-	0	-	-	0.0
⑧ 글로벌	-	-	1	-	-	4.0

참고 : ⑥ 융자 사업유형은 2022년, ⑦ 인력, ⑧ 글로벌 사업유형은 2023년도에 추가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2021~2023년)

- 2023년 전북도 창업지원사업을 생태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 기업, 기업가/창업 관련 사업이 많고, 사업 예산은 교육, 기업가/창업, 기업 순으로 높음
 - 교육(6개), 기업(5개), 기업가/창업(4개) 순으로 사업 수가 많았음
 - 사업 예산 역시 교육(24.7억 원), 기업가/창업(18.8억 원), 기업(14.9억 원) 순
 - 특히 지원조직, 기술/지식 인프라, 정책/규제, 문화/인식 관련 지원사업 부재

◀ 표 6 ▶ 전북 광역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생태계 부문별 현황(2023년)

생태계 부문	사업 수(건, 중복 집계)	예산액(1억 원, 중복 집계)
① 기업가/창업	4	18.8
② 지원조직	-	-
③ 자금	2	5.9
④ 기술/지식 인프라	-	-
⑤ 정책/규제	-	-
⑥ 문화/인식	-	-
⑦ 교육	6	24.7
⑧ 기업	5	14.9

주 : 생태계 부문별로 중복 집계

⑥ 융자 사업유형은 2022년, ⑦ 인력, ⑧ 글로벌 사업유형은 2023년도에 추가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3년 전북도 생태계 부문별 대표 창업지원사업은 [표 7]과 같음
 - (기업가/창업)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와 학생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등
 - (자금) 중앙정부와 달리, 융자지원 사업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사업’과 같이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 (교육)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사업’ 등 창업 및 사업화 교육
 - (기업) ‘전북 성장육성 바우처 지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과 ‘창업기업 국제 투자 유치 촉진 지원’ 등 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사업 등

◀ 표 7 ▶ 전북 광역 지자체 생태계 부문별 주요 창업지원사업(2023년)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억 원)	소관 부서
① 기업가/창업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기술, 지식서비스 기반의 아이템을 연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 등 창업패키지 제공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창업 유도	사후관리 지원, 마케팅, 컨설팅 지원등	창업 1년 이상 3년 이내 기업	7.5	전라북도 창업 지원과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창업에 관심있는 고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아이템 발굴에서 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여 창업 인재 육성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고교 및 대학 창업동아리	1.3	
③ 자금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사업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아이템은 우수하나 홍보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 제품의 판로 제공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 제품 개선 및 플랫폼 입점비 및 수수료 (8,000천 원) 지원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	1.9	
⑦ 교육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사업	창의적인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진 예비 청년 창업가의 아이템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초기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	창업교육운영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50명 만 39세 이하 시군(예비) 창업가	5.0	
⑧ 기업	전북 성장육성 바우처 지원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전단계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화, 마케팅 지원	7년 이내 창업기업	3.0	
	창업기업 국제 투자 유치 촉진 지원	도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해외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유망스타트업 직접 투자	7년 이내 창업기업	4.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전라북도 기초 지자체 창업정책

- 전북 기초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은 2021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 (사업 수) 0개(2021년) → 6개(2022년) → 21개(2023년)로 증가
 - (사업 예산) 18.6억 원(2022년) → 51.0억 원(2023년)으로 증가

- 2022~2023년 전북 기초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시설/보육 지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사업 수 및 예산이 사업화에 집중
 - 단 전북 광역 지자체 대비 더 높은 비중으로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 수행

◀ 표 8 ▶ 전북 기초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부문별 현황(2022~2023년)

사업유형	사업 수(건)		예산액(1억 원)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합계	6	21	18.6	51.0
① 사업화	4	10	16.6	40.4
② 시설/보육	2	7	2.0	5.8
③ 기술개발	-	-	-	-
④ 멘토링	-	2	-	0.3
⑤ 행사/네트워크	-	1	-	0.5
⑥ 용자	-	-	-	-
⑦ 인력	-	-	-	-
⑧ 글로벌	-	1	-	4.0

참고 : ⑥ 용자 사업유형은 2022년, ⑦ 인력, ⑧ 글로벌 사업유형은 2023년도에 추가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2022~2023년)

- 2023년 전북 기초 지자체 지원사업을 생태계 부문별로 중복 집계하여 살펴본 결과, 기업가/창업, 자금, 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많고 사업 예산은 자금, 교육, 기업가/창업 순으로 높음
 - 사업 수는 기업가/창업(17개), 자금(16개), 교육(14개) 순으로 많음
 - 사업 예산은 자금(45.7억 원), 교육(41.2억 원), 기업가/창업(39.5억 원) 순으로 높음
 - 앞서 유형별 사업 구분에서 시설/보육 사업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이 지원조직 설립 또는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기업가/창업기업 지원에 활용되어 지원조직 관련 사업 부재

◀ 표 9 ▶ 전북 기초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생태계 부문별 현황(2023년)

생태계 부문	사업 수(건, 중복 집계)	예산액(1억 원, 중복 집계)
① 기업가/창업	17	39.5
② 지원조직	-	-
③ 자금	16	45.7
④ 기술/지식 인프라	-	-
⑤ 정책/규제	-	-
⑥ 문화/인식	-	-
⑦ 교육	14	41.2
⑧ 기업	4	11.5

주 : 생태계 부문별로 중복 집계

⑥ 융자 사업유형은 2022년, ⑦ 인력, ⑧ 글로벌 사업유형은 2023년도에 추가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3년 전북 기초 지자체 생태계 부문별 대표 창업지원사업은 [표 10]과 같음
 - (기업가/창업) ‘민관협력 위드르컬 청년창업 지원’, ‘남원시 청년 희망티움 창업지원사업’과 같이 사업화 자금, 교육·컨설팅 등 종합 지원 형태 중심
 - (자금) ‘창업희망키움사업’을 비롯하여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 및 ‘군산 STAY 청년 창업 주거지원사업’ 등 주거비·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특화프로그램’ 등 대부분 기업가/창업 지원과 함께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결합되어 지원
 - (기업)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중심

◀ 표 10 ▶ 전북 기초 지자체 생태계 부문별 주요 창업지원사업(2023년)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억 원)	소관 부처
① 기업가/ 창업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예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지원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자금 팀당 최대 45,000천 원 지원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전국 대상)	10.0	전라 북도 익산시 (기업 일자리과)
	남원시 청년 희망톡톡 창업지원사업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등 단계별 지원으로 성공창업 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자금, 임차료 등 지원 교육·훈련·컨설팅·홍보비 등 지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3년차)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1.8	전라 북도 남원시 (기획실 청년정책 담당)
③ 자금	창업 희망키움사업	유망 청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2,900만 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만 19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기창업자	5.5	전라 북도 군산시 (일자리 정책과)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및 청년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 보유 원룸 2보종금 최대 3,500천 원 및 월 임대료 최대 100천 원 	만 19~39세 이하 군산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가 및 청년 창업기업의 청년직원	1.1	
⑦ 교육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특화프로그램	해커톤, 플리마켓,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0.5	
⑧ 기업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	매출향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비 지원 최대 3,000천 원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0.5	전라 북도 익산시 (기업 일자리과)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장 임차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료 지원 월 최대 50만 원/6개월,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0.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IV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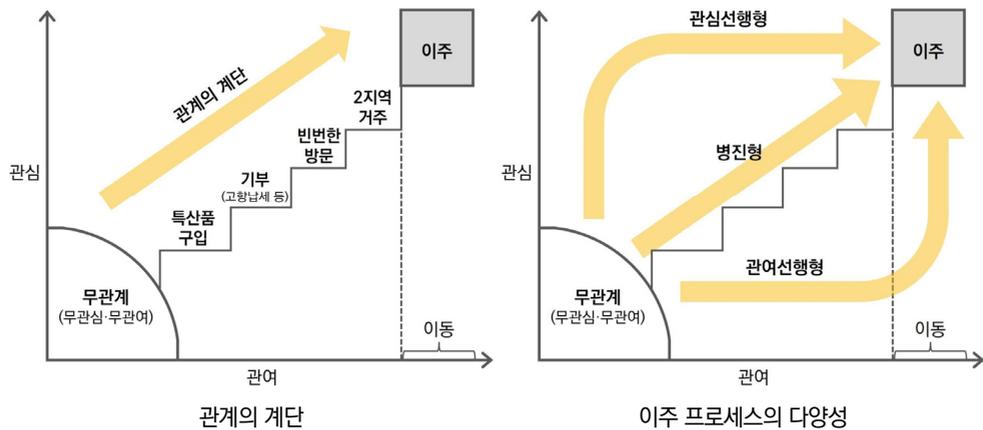
1. 관계인구 개념 및 의미

□ 관계인구 개념

- 관계인구는 학술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기보다 일본 현장 활동가들이 제안한 신조어임(류영진 2020)
 - 타카하시 히로유키, 사시데 카즈마사, 다나카 테루미 등 일본 현장 활동가들이 관계인구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구체화함
- 타카하시 히로유키가 일회적인 ‘관광’과 진입장벽이 높은 ‘정주’ 외에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지칭하기 위해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함
 - 교류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관계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도시민의 입장에서 정주라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며, 정주 외에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소개함
- 사시데 카즈마사는 관계인구를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구체화함
 -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하는 이들 이라고 설명함
 - 관계인구 개념을 좀 더 지역의 입장에서 구체화하면서, 관계인구의 적극성, 기여도 등을 중요한 요소로 봄
- 다나카 테루미는 이주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관계인구를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함
 -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에 활기가 있길 바라며 응원하는 ‘팬(fan)’의 의미를 강조함

- 이처럼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던 관계인구 개념을 오다기리 토쿠미라는 학자가 이론화함(小田切 德美 2017)
- 오다기리 토쿠미(2017)는 관계를 ‘관심(마음을 전하다)’과 ‘관여(관계하다)’로 해석하여, 관계인구를 관심인구와 참여인구의 합으로 바라봄
- 무관계에서 이주로 이어지는 관계의 계단과 다양한 이주 프로세스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에는 무관심에서 정주로 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전제했다면, 관계인구 개념을 통해 무관계에서 이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관계의 계단이 있음을 강조함
 - 관심, 관여가 증대되는 양상에 따라 관심선행형, 병진형, 관여선행형 등 다양한 이주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

◀ 그림 17 ▶ 관계인구 개념의 도식화



자료 : 小田切 德美(2017) 재구성

- 정책적으로 관계인구 개념은 정주민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은 이러한 관계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관계인구는 이주 기대집단을 의미하므로, 이주 확대를 전제로 관계인구 증대 정책을 추진함
 - 관계의 계단을 따라 무관계에서 이주로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
 -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관계인구 의미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구를 의미함
 - 외부인, 정주인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함으로써 관계의 다양성을 시사함
 - 관계인구는 이주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의미하므로, 관계인구 확대 전략은 이주 촉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함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바라보면, 좁은 의미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외부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외부 투자기관, 지원조직까지 포괄할 수 있음
 - 기존에는 도내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지원했지만, 관계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외부 창업자가 도내에 창업하거나 도내로 창업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 창업자와 창업기업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창업자, 창업기업 외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기관이나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조직이 있으므로, 외부 투자기관, 지원조직과 관계를 맺거나 이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음
- 이때 지자체 역할은 외부에 있는 창업자,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과 관계를 맺고 이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지자체의 최종 목표는 외부의 우수한 창업자,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을 유치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임
 - 그러나 외부 행위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유치를 전제로 외부 행위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내부 행위자와 외부 행위자의 중간자로서 관계의 계기를 만들거나, 수요를 매칭하거나,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시간적, 금전적,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2.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 일본 도쿄도 NEXs Tokyo의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

- (사업목적) 전국 각지의 스타트업과 혁신 촉진에 임하는 다양한 인간·정보·조직을 연결하여 스타트업이 광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함
- (사업대상)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대상
 - 도쿄도 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DIVE' 사업, 도쿄도 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JUMP'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DIVE 사업과 JUMP 사업의 대상요건과 선정자 수는 [표 11]과 같음

◀ 표 11 ▶ NEXs Tokyo 사업유형별 대상요건 및 선정자 수

사업유형	대상요건	선정자 수
D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 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 창업(제2 창업 포함) 후 10년 이내 • 도쿄도 내 사업 성장 환경에 접숙해, 단기간에 자금 조달, 판로 확대 등 사업 가속을 지향하는 경우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사업 가속으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이나 잠재력 보유한 경우 	5사
J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 창업(제2 창업 포함) 후 10년 이내 • 실증 실험, 판로 확대 등의 목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사업 전개를 지향하는 경우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도쿄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5사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program/>)

- (사업내용) 스타트업 활동 지역에 따라 사업유형이 구분되며, 사업 개시 후 5개월간 개별 멘토링, 워크숍, 매칭, 데모데이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짐
- 도쿄도 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DIVE 사업내용은 아래 [그림 18]과 같음

◀ 그림 18 ▶ NEXs Tokyo의 DIVE 사업내용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program/>)

- 도쿄도 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JUMP 사업내용은 아래 [그림 19]와 같음

◀ 그림 19 ▶ NEXs Tokyo의 JUMP 사업내용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program/>)

-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대기업과 제휴 방법, 홍보 방법 등 전략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판로 확대를 위한 거래처,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기관 등과 교류 기회를 제공함(표 12) 참고)

◀ 표 12 ▶ NEXs Tokyo 워크숍 내용

내용	목적·개요	소요 (분)	대상	
			JUMP	DIVE
지자체 협업의 기초 지식	• 지자체와 협업하기 위한 각종 제휴 패턴이나 예산 제도 등 필요한 지식과 유의 사항	90	○	○
사업 연계의 포인트 (대기업 시점)	• SU와 대기업 제휴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업 협력 포인트와 단계	90	○	○
사업 연계의 포인트 (선배 기업가 시점)	• 선배 기업가 관점에서 지자체와의 실증 실험 협업 등의 포인트 전달	90	○	○
사업 연계의 포인트 (지자체 시점)	• 지역 지자체·지방 파트너 5~7명과 매칭 기회 제공	90	○	○
투자자 멘토링	•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재 비즈니스 피드백 받음 • VC 금융에 대한 이정표 제안 • VC와 네트워크 구축	90	×	○
사업계획 입안 방법	• 사업 성장과 자금 조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입안 방법	90	○	○
자본 정책 포인트	• 우선주식, J-Kiss 등 자금 조달의 장점과 단점, 스톡옵션 활용 방법 등 자본 정책 실무	120	○	○
집중 멘토링 데이	• 대기업, 미디어 센터 등 외부 멘토에 의한 협업 제휴 시선, 고객 개발 시선에서 사업 프레시업	90	○	○
부채 조달 포인트	• 선배 기업가 관점에서 지자체와의 실증 실험 협업 등의 포인트 전달	90	○	○
CS 전략	• 고객 성공을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	90	○	○
홍보·PR 전략	• 홍보 목적이나 전달하고 싶은 타겟 지원을 바탕으로 최적 홍보 전략 수립	90	○	○
조직 채용 전략	• 사업 목표에 기반한 조직 확대 전략 수립	90	○	○
프레데모데이	• 데모데이 매칭 및 P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 회사의 프레시업	240	○	○

주 : 워크숍 내용은 제5기(전기) 프로그램 내용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는 대상, ×는 대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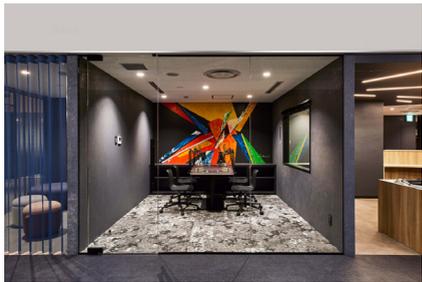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program/>)

● (추진체계)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NEXs Tokyo가 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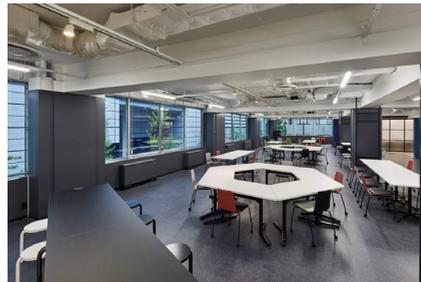
- NEXs Tokyo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국내외 기업, 지원조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스타트업 정보가 모이는 허브를 목표로 구축됨

- NEXs Tokyo에서는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창업자, 창업팀도 이용할 수 있는 아래 [그림 20]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
- 회원 스타트업으로 등록하면 18개월간 무료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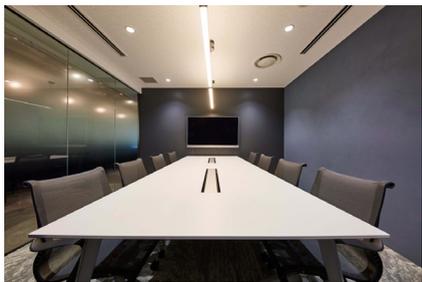
◀ 그림 20 ▶ NEXs Tokyo의 커뮤니티 공간



정보 발신 공간



일하는 공간



상담 공간



이벤트 공간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community/>)

- [표 13]과 같이 매칭 컨시어지 6인과 커뮤니티 관리자 1인이 상주하여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표 13 ▶ NEXs Tokyo 상주직원 현황

유형	역할	인원
매칭 컨시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지 행정, 키맨과 제휴 • 스타트업 사업 창출 및 조성을 위한 지원 추진 • 파트너 기업, 멘토진과 매칭 실시 	6인
커뮤니티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s Tokyo 시설 운영 • 스타트업, 파트너 기업, 멘토 간 커뮤니티 형성 지원 • 다양한 이벤트, 정보 발신 기획·운영 • 활동에 대한 체험 지원 	1인

자료 : NEXs Tokyo 웹사이트(<https://nexstokyo.jp/community/>)

● (우수사례 1) 이와테현 소재 스타트업 ‘헤랄보니’

- 스타트업 개요

- ▶ 이와테현에 본사를 둔 헤랄보니는 일본 전국 지적장애인 작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0점 이상 작품을 데이터로 보유하며 제품화하는 스타트업
- ▶ 예술이라는 필터를 통해 장애인과 만남을 만들어 ‘장애는 누락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전하고 있음

◀ 그림 21 ▶ 헤랄보니 아트 데이터 협업 사례



자료 : 헤랄보니 웹사이트(<https://www.heralbonny.jp/works/>)

- 사업모델

- ▶ 30개 이상의 복지시설과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작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들의 작품을 지적재산(IP)으로 보유함
- ▶ 아트 데이터를 유명 패션 브랜드, 무역 회사, 대리점 등에 데이터로 건네주고 라이선스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음
- ▶ 중증 지적장애인이 라이선스료로 안정된 생활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참여동기

- ▶ 시리즈 A를 목표로 하던 시점에 시부야 인큐베이션 시설 커뮤니티 매니저 소개로 NEXs Tokyo의 DIVE 사업에 응모함

- 참여성과

- ▶ 재무 전문가가 없어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정책표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주 멘토링을 통해 재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음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치 가설 검증, 벤치마크 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피치 콘테스트에서 우승함

- (우수사례 2) 가고시마 소재 스타트업 ‘ecommit’과 ‘다이마루유SDGs ACT5’ 매칭
 - 스타트업 개요
 - ▷ ecommit은 가고시마에서 창업하여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환경 스타트업
 - ▷ 주로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추진 서비스 ‘CaaS(Circularity as a Service) 사업’을 추진하여 사물 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제공함
 - 사업모델
 - ▷ 불용품의 회수/판촉을 실시하는 ‘Re:POST’, 폐기물의 재가치화를 실시하는 ‘MINING’, 순환 상품을 생산하는 ‘LOOP’ 등 3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을 가시화하는 ‘EVP’라는 SaaS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 의류에 한정되지 않고 가구, 가전, 잡화, 농기구, 기계, 건축 자재 등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전국 약 1,300개소 거점으로부터 회수 사업을 실시함
 - ▷ 18개 지자체와 제휴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품을 줄이는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전국 대응형 회수 물류 네트워크, 회수물 선별 노하우, 판매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에서 재사용·재활용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술을 보유함
 - 참여동기
 - ▷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함께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제2 창업기로 파악함
 - ▷ 가고시마 벤처기업으로서 도쿄 대기업과 접점을 만들고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기 위한 영업력에서 과제를 안고 있었음
 - ▷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도 가고시마에 있으면 VC나 투자자와 알게 될 기회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음
 - 참여성과
 - ▷ 다이마루유SDGs ACT5(大丸有SDGs ACT5)^{*}와 제휴하여 포스트형 회수 박스 ‘Re:POST’ 활용한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함
 - * 다이마루유SDGs ACT5는 다이마루유 내외 기업, 단체가 제휴하여 다이마루유 지역을 기점으로 SDGs 달성을 향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 다이마루유 지역의 오피스 빌딩의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포스트형 회수 박스 ‘Re:POST’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회수한 의류는 이토 타다 상사와 ecommit이 실시하는 섬유 제품 회수 서비스인 ‘WEAR to FASHION’을 통해 순환함

- ▶ 매칭 컨시어지가 환경 분야 프로젝트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이 있었으며 적합한 제휴처를 소개해 주었음
- ▶ 포스트형 회수 박수 'Re:POST'는 재활용 자체의 성과도 물론 거두었지만, 기업이나 지자체에 사업의 가치나 목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거두었음
- ▶ 향후 다이마루유SDGs ACT5 참여 기업 외에도 부동산업, 유통업 등과도 얼라이언스를 넓혀갈 계획임

◀ 그림 22 ▶ Re:POST 설치사례



자료 : ecommit 웹사이트(<https://note.com/ecommit/n/nf912cbc6d1ba>)

□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 (사업목적)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고베시에 새롭게 사업장을 개설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함
- (사업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고베시에 새롭게 사업장을 개설하고 시장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 경험·실적 또는 지식·능력이 있고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3년 이상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사업 인증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고베시 내에 해당 사업장을 상업·법인 등기할 의사가 있는 사람
 - 고베시에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을 단순히 물류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업내용) 고베시에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임차료, 통신회선 사용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장 개설 시 1회 한정으로 건물 개수비, 사무기기 취득비 등을 지원함
 - 상세한 대상요건, 보조율, 보조 한도액, 보조기간에 대한 내용은 [표 1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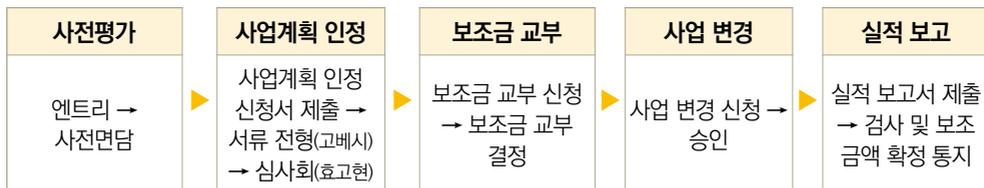
◀ 표 14 ▶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지원내용

구분	대상요건	보조율	사업자당 보조 한도액	보조기간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임차료 및 시설 사용료 • 기설설비 등으로 건물과 불가분한 것(서버용 랙, 전기 관련 설비 등)의 임차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 코워킹스페이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 등기 가능한 경우에 한함 	보조대상 경비의 1/2 이내	7만 5천 엔/월	
통신회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보조 사업자가 지불하는 통신 회선 사용료 • 통신 회선 사용료에는 인터넷 접속비 외 전용 회선, 프로바이더, 렌탈서버, 도메인 이용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등 일련의 경비 포함 	보조대상 경비의 1/2 이내	60만 엔/년	36개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장에서 고도 IT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고베시에 거주하는 고도 IT 기술자와 관련된 인건비 	정액	83,333엔/월 ※ 1인분/년의 범위 내	
건물 개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건물 개수비 • 단,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상 공사비가 100만엔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조 대상 	보조대상 경비의 1/2 이내	100만 엔 ※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도 100만 엔을 상한에 가산	사업장 개설 시 1회 한정
사무기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사무기기 취득비(OA 기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50만 엔	

자료 : 神戸市 経済観光局 新産業創造課. 2023. “神戸市スタートアップ立地促進事業募集要項”

- (사업절차) 사전평가, 사업계획 인정, 보조금 교부, 사업 변경, 실적 보고 순 추진
 - 고베시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절차는 아래 [그림 23]과 같음

◀ 그림 23 ▶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절차



자료 : 神戸市 経済観光局 新産業創造課. 2023. “神戸市スタートアップ立地促進事業募集要項”

- [표 15]와 같이 신규성·독창성·우위성, 시장성·마케팅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스타트업을 심사함

◀ 표 15 ▶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심사 기준

구분	내용
신규성·독창성·우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독창성, 이용자 편리성 등 • 유사한 제품·서비스와의 차이점, 경쟁 우위
시장성·마케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규모 및 그 근거, 타겟 고객 • PR 방법, 마케팅 방법, 판매 예정 가격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현에 따른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미지 향상 • 새로운 수요와 고용 창출 효과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목적의 명확성 • 사업내용, 수지계획의 타당성 •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인재 확보, 대표자의 경험·능력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 성과, 제품·서비스의 발전가능성 • 전국 및 해외 판로 확대 가능성

자료 : 神戸市 経済観光局 新産業創造課. "スタートアップ立地促進補助Q&A"

- (추진일정) 신청 접수 기간은 6~7월 초, 12~1월 초로 1년에 두 차례 추진함
 - 엔트리, 사전면담은 수시 접수를 받으며, 이를 실시한 후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함

◀ 표 16 ▶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제1회	제2회
신청 접수 기간	6~7월 초순경	12~1월 초순경
고베시 서류 전형	7월 하순경	1월 하순경
효고현 심사회	8월경	2월경

자료 : 神戸市 経済観光局 新産業創造課. 2023. "神戸市スタートアップ立地促進事業募集要項"

- (추진체계) 고베시(기초 지자체)가 효고현(광역 지자체)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2018년부터 고베시는 효고현과 연계해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베시가 사업 전반을 운영하며 효고현은 사업계획 인정 단계에서 심사회에만 참여

-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고베시와 효고현이 분담함
- 고베시는 기업 진출 종합 사이트 ‘KOBE BUSINESS WIND’를 운영하면서(그림 24 참고), 고베의 강점과 전략산업을 홍보하고 고베로 기업 진출 및 확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림 24 ▶ 고베시의 기업 진출 종합 사이트



자료 : 고베시 기업 진출 종합 사이트(<https://kobe-investment.jp>)



관계인구 활용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 결과 종합

□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분석 결과

- 지역 내 민간 창업 지원조직이 부족하고 기술기반업종 창업이 저조하나, 최근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고 창업기업 생존율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함
 -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창업 지원조직이 부족하고, 기술기반업종 창업, 고성장창업기업 창출이 저조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음
 - 기업가적 성향·역량이 향상되고 창업기업 생존율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함
-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창업지원에 대한 전북도의 관심이 높고 전북 내 연구개발 역량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북도에서 창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북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점은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최근 들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하락하고 창업을 계획하는 인구도 줄고 있어 창업기업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 표 17 ▶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SWOT 분석결과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적 성향·역량 향상 • 최근 전북 창업기업 생존율 개선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창업지원사업 확대 추세 • 전북기업 연구개발 역량 성장세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대중화 저조 • 민간 창업 지원조직 부족 • 기술기반업종 창업 저조 • 고성장창업기업 창출 미흡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활동에 대한 태도·의지 하락 • 최근 창업 계획 인구 하락세

□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분석 결과

- 중앙정부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이 선발하고, 육성하고, 투자까지 하는 ‘민간 주도형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 민간 투자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함
 - 민간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TIPS 운용사 유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민간 중심 창업정책 자문단 운영 등 민간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 투자사(TIPS 운영사)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전북에 개소함
 - 공공 및 민간 출자를 통해 약 140억 원 규모의 강원·전북 지역혁신 펀드가 조성되었으며, 전북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기후기술(신재생에너지·순환경제·탄소포집 활용 등), 농식품(그린 바이오·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분야 기업 발굴에 사용될 예정임
 - 창업정책 자문을 위해 민간 투자사, 창업 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전북 창창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음
- 이처럼 사업화나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창업정책이 추진되는 동시에,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한계 극복을 위해 외부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이 기획되고 있음
 - (지역-해외 간 연계) ‘글로벌 벤처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은 해외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협력하여 전북 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지역 간 연계) ‘d·camp와 함께하는 리모트워크 #전북’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선배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지역 스타트업과 하루 동안 함께 근무하며 창업, 투자 정보 등 공유하는 사업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바깥에 있는 창업기업, 지원조직 등과 네트워킹하여 내부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관계인구를 유치하려는 것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조사 결과

-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사사례인 '일본 도쿄도 NEXs Tokyo의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을 살펴봄
 - 일본 도쿄도 NEXs Tokyo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멘토링, 매칭 등을 지원하므로, 외부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사업임
 -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외부 스타트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스타트업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일본 도쿄도 NEXs Tokyo의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간 관계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주직원의 전문성이 높고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적 장기간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적임
 -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5개월간 멘토링, 워크숍, 매칭 등 집중 지원함
 -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회적인 워크숍, 매칭에 그치지 않아 사업기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별 경험, 전문지식을 보유한 매칭 컨시어지 6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업 여건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부 주요 행위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내·외부 수요 매칭 정확도가 높음
-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효고현)와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육성산업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점, 고베시에서 기업 진출을 돕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고베시에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임차료, 통신회선 사용료, 인건비 등을 지원함
 - 고베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나 고베시 육성산업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발함
 - 고베시는 또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진출 종합 사이트를 통해 고베의 강점, 전략산업을 홍보하고 제도를 안내하여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2. 정책 제언

□ 지자체 역할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관계인구'는 지역과 관련된 외부 창업자, 창업기업부터 외부 투자기관, 지원조직까지 포함함
- 지자체 역할은 외부에 있는 창업자,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과 관계를 맺고 이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우수한 창업자, 창업기업, 민간 투자기관, 민간 지원조직 등을 유치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북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외부 행위자를 한 번에 지역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므로, 관계의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는 관계 형성을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하며, 내·외부 행위자 간 수요를 매칭하고, 시간, 자금,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표 18 ▶ 관계인구 개념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역할	내용
중개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외부 창업자,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 매칭 행사, 네트워킹 행사 등을 주선하거나 지원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외부 행위자들에게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예: 지역의 강점, 기회, 지원 정책 등)를 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발 및 참여 유도
관계 형성·발전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외부 행위자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예: 스타트업을 위한 우대적인 입지 조건, 혜택 제공 등
협력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의 지원조직, 기업, 대학 등과 협력 체제 구축
관계 형성·발전 장애물 파악 및 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형성·발전을 막는 장애물 파악 및 극복 지원 ● 관계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시간적, 금전적, 법적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자료 : 연구자 작성

□ 정책대상 설정

- 관계 수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여, ‘무관계 스타트업’,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 ‘이전 스타트업’으로 구분함
- 무관계 스타트업은 전북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다른 지역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서 전북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은 전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당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전북 내 거래처를 탐색하거나 전북의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해당함
-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은 전북 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이전에 전북에서 활동하던 스타트업이 현재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함
- 이전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스타트업으로, 전북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나 전북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외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가 다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함

◀ 표 19 ▶ 관계 수준에 따른 정책대상 세분화

정책대상	특성	예시
무관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과 관계가 없는 스타트업 • 전북 지역에 관심이 적은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전북과 관계가 없는 경우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 • 전북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내 거래처를 탐색하고 있는 경우 • 스타트업이 전북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경우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전북과 관계가 있었으나 관심이 줄어든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 이전에 전북에서 활동하던 스타트업이 현재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 • 전북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외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가 다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료 : 연구자 작성

□ 단계별 추진 방안

● (단계 1) 스타트업 관계 수준 파악

- 무관계 스타트업,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 이전 스타트업 등의 스타트업들의 관계 수준 파악을 실시함
- 지역 내 스타트업들과 외부 스타트업들과의 연결점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 (단계 2)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밋업, 창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스타트업과 외부 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의 네트워킹을 촉진함
- 전북 스타트업과 타 지역 스타트업 간 소통,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지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밋업을 개최함
- 전북 창업 동향 안내, 전북 창업 혜택 홍보를 위한 창업 박람회를 개최함
- 전북의 강점, 전략산업을 홍보하고, 전북으로 기업 이전 및 확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합 안내하며, 스타트업이 필요한 연락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 내외 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조직에게 전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간과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 행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예: 스타트업 밋업, 창업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단계 3)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대상으로 전북 지역 창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워크숍이나 정보 제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스타트업이 전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과 관계 유지를 위해 기존 지원 사업을 개선하면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성 사무실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외부 스타트업이 전북에 지사 설립 혹은 협업 공간 마련 시 전북도 소유 공간을 임대하거나 그 외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비용을 지원함
- 예: 워크숍, 매칭 사업, 위성 사무실 지원사업 등

- (단계 4)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이전 스타트업에 전북 내 지역 펀드 출자를 지원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함
- 정주 지원을 통해 이전 스타트업이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전 스타트업에 사무실을 무상 또는 우대 조건으로 제공함
- 예: 지역 펀드 출자, 정주 지원, 사무실 지원 사업 등

- (단계 5) 관계 안정화를 위한 지속 성장 지원

- 지속적인 멘토링과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이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전 스타트업과 전북 내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전 스타트업이 전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 투자기관과 협력하여 이전 스타트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함
- 예: 멘토링 및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거래처 발굴 지원, 자금 지원 등

참고
문헌

- 구양미. (2022). Entrepreneurial Ecosystems(기업가적 생태계) 개념과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1-22.
- 김영환 & 김지은. (2020).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6차년도) - 제1권: 한국의 혁신창업 생태계 성과 진단 및 대시보드 개발 -. 조사연구 2020-04-01.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류영진. (2020).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1): 5-30.
- 小田切 徳美. (2017). 「關係人口論」とその展開. 資料4. 第6回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 配付資料.
- Stam, Erik. (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69.

부록

전라북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지표

부문	구성요소	지표	정의	단위	출처
기업가/창업	기업가 정신	기업가적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을 의미 • 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도성, 자율성, 경쟁추구성, 성취욕구 등으로 측정 	100점 만점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 조사」
		기업가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의 실천적, 행동적 특성을 의미 • 인지 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업화 역량 등으로 측정 	100점 만점	
		기업가적 태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활동에 대한 실천적인 태도와 의지를 의미 • 기업가적 태도, 개인적 인식, 사회적 인식 등으로 측정 	100점 만점	
	창업활동	창업기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영리기업 (개인 및 법인 포함,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창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 	%	
	창업의 질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OECD, EU 기준 준용) 	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창업의향	창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4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여부 및 기간에 대해 질문(기간 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 이후 응답 합산 비율) 	%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 조사」	
지원조직	액셀러레이터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2명의 상근 전문 인력 및 사무실 등 시설 필요 	건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웹사이트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 	개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웹사이트
		입주기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 	개	

부문	구성요소	지표	정의	단위	출처
기술/지식 인프라	기업 연구개발 역량	기업부설 연구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벤처기업/연구원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연구개발 전담부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개	
정책/ 규제	창업지원	정부 창업지원 예산 및 사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산 추진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하여 공고·안내 다만, 본 연구에서의 정부 창업지원 규모 통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투자, 융자, 보증) 예산은 포함되지 않음 	원/건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웹사이트
교육	창업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실태조사 응답자인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자 중 창업 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 	%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 조사」
문화/ 인식	실패 두려움	개인의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점 척도로 설문(본 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100점 만점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실태 조사」
기업	기업 생존율	신생기업 생존율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전 신생기업 중 기준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 비율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신생기업 생존율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전 신생기업 중 기준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 비율 	%	
		소멸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 	%	
기업	신규고용	신생기업 종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신생기업의 고용주(대표자)와 상용근로자의 합계 	명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신생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기업 총 종사자 수를 신생기업 수로 나눈 값 	명	
기업	고성장 창업기업	고성장 창업기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또는 10% 이상인 기업(등록 후 5년 이하 기업) 	개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